



# 프로야구 시즌 막판 중상위권 순위 싸움에 불 붙었다

2위 LG, 1위 SSG와 7경기차  
3위 KT·4위 키움, 0.5경기차  
6위 롯데, 5위 KIA 4경기차

프로야구가 시즌 후반 순위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다. SSG 랜더스는 8월28일 현재 여전한 1위를 달리고 있다. 개막 10연승을 달리면서 1위에 올라선 SSG는 원투펀치 김광현과 월터 폰트, 손 모리만도가 이끄는 안정된 선발진과 견고한 불펜진, 팀 홈런(100홈런) 1위의 화려한 타선을 앞세워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SSG 이태양과 오원석의 선전, 베테랑

노경은의 완벽 부활로 마운드 운용에 상당한 여유를 보이고 있다. SSG는 올해 76승 3무 36패를 기록했다. 올 시즌 남은 29경기 중 5할 승률만 기록해도 90승이 넘는다. 현재 SSG의 전력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SSG는 이번 주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와 맞대결을 펼친다. 80승에 선착할 경우,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94.1%(17차례 중 16번·2000년 양대리그 제외)에 이른다. 2위 LG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68승 1무 42패를 기록했다. LG와 1위 SSG의 승차는 7경기차.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역전을 위해서는 SSG가 난조를 보이고, LG가 후반에 7

할에 육박하는 승률을 거둬야 가능하다. 국내 선발진이 약한 LG에게 1위 탈환은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채은성, 김현수, 박해민, 문보경 등 타선의 선전이 절실하다. 1, 2위 자리를 굳혀준 가운데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는 3, 4위 자리를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 KT(63승 2무 49패)는 최근 15경기에서 11승 4패의 높은 승률을 기록 중이다. KT 토종 선발진 고영표와 소형준이 투수진을 이끌고 있다. 김민수와 김재윤이 버티는 불펜진도 든든하다. 특히 고영표는 최근 7경기 연속 승리투수가 되는 등 12경기에서 10승을 올렸다. 시즌 12승을 올려 생애 첫 다승왕에 도전하고 있다. 8월 들어 주춤하고 있는 홈런 1위 박병호의

장타력이 살아나야 KT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설 수 있다. 키움(64승 2무 51패)은 최근 11경기에서 8승 3패를 기록해 4위로 밀려났다. 한때 SSG 자리를 위협했던 키움은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타선에서도 김해성과 이정후만 제몫을 다할 뿐 라인업 대부분의 선수들이 타격 난조로 흔들리고 있다. 키움의 올해 팀 타율은 0.250으로 리그 최하위 수준이다. 5위 KIA 타이거즈(56승 1무 56패)와 6위 롯데 자이언츠(52승 4무 60패)의 포스트시즌 마지막 티켓 확보를 위한 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KIA는 꾸준하게 5할 승률을 기록하며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김선빈과 박찬호, 소크라테스 브리토,

나성범 등이 고강도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스 양현종이 다소 주춤하지만, 영건 이의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IA 외국인 투수 선 놀런과 토마스 파노니의 선전이 필요하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간절한 롯데는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이대호와 베테랑 전준우를 필두로 힘을 쥐어짜내고 있다. 돌아온 에이스 댄 스트레일리네는 4경기에서 3승을 쓸어담아 롯데의 선발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16경기에서 11승 5패의 성적을 올려 시즌 막판 포스트시즌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 찰리 반즈와 박세용, 이인복 등 선발진의 활약이 뒷받침 돼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 ‘은퇴 투어 타율 0.412’ 이대호의 뜨거운 안녕

은퇴 투어 경기 마다 안타...4경기서 17타수 7안타 1홈런 6타점 활약



지난 28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KBO 롯데 자이언츠 대 SSG 랜더스 경기, 시작 전 은퇴투어 중인 이대호가 추신수의 영상편지를 보고 있다. (사진=SSG랜더스 제공)

이토록 뜨거운 작별 인사가 있을까. 이대호(40·롯데 자이언츠)가 자신의 은퇴 투어 경기마다 안타를 뽑아내며 최고의 마무리를 선사하고 있다. 이대호는 28일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홈런 하나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2타점을 때려냈다. 이대호의 맹타와 함께 롯데는 선두 SSG를 4-2로 눌렀다. 이대호의 활약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

다. 이대호는 프로 마지막 시즌인 올해 114경기에서 타율 0.330을 작성 중에 있다. 은퇴를 목전에 두고도 타율 전체 3위에 오를 만큼의 경쟁력을 보이는 중이다. 돋보이는 건 ‘잘 치는’ 이대호가, 은퇴 투어 경기에선 더 잘 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호는 2017년 ‘국민타자’ 이승엽(당시 삼성 라이온즈)에 이어 두 번째로 KBO리그 전 구단이 함께하는 은퇴 투어의 주인공이

됐다. 각 구단은 이대호의 마지막 원정 경기에 맞춰 기념식과 선물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의 은퇴를 기념하고 응원을 보내주는 상대 구단과 팬들을 위해 ‘선수’ 이대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화답하고 있다. 그는 첫 은퇴 투어 경기였던 지난달 28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4타수 2안타 3타점의 활약을 펼쳤다. 이어 지난 13일 KIA 타이거즈전에서도 4타수 2안타로 멀티히트를 때려냈고, 23일 NC 다이노스전에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작성했다. 그리고 SSG를 상대로는 홈런까지 터트리면서 자신의 은퇴 투어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은퇴 투어 경기 타율만 0.412(17타수 7안타)에 달하고, 1홈런 6타점까지 수확 중이다. 이대호는 “은퇴 투어를 하면 마지막 타석마다 상대 팀 팬들이 응원해준다. 그때마다 울컥한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떠날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네 번의 은퇴 투어를 소화한 이대호는 오는 31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 등 5번의 원정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남겨두고 있다. 최고의 은퇴 시즌을 향해 나아가는 이대호와 함께 롯데도 힘을 내고 있다. 이달 초 8위까지 떨어지며 가을야구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롯데는 반등하며 6위로 올라섰다. 5위 KIA와 격차는 4게임까지 좁혔다. 마지막 시즌을 더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이대호의 꿈도 커지고 있다.

## 순천대 강수빈, 제39회 회장기서 ‘금빛 명종’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 여자대학부 개인전 2개부문에서 금 1·은 1개



순천대학교 양궁부 강수빈이 ‘올림픽제패기’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빛 활시위를 당겼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직무대행 최기동)는 지

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에서 개최된 ‘올림픽제패기’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 여자 리커브 대학부 개인 경기에서 2개 부문 60m, 50m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강수빈(순천대 4학년)은 60m에서 347점을 쏘 임시현(한국체육대)과 김서영(경희대)을 각각 2점차이와 3점차이로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50m에서 338점을 쏘 임시현(한국체육대)에 7점차이로 저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수빈은 “아쉬운점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대한민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라는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강수빈은 전남체육·고를 졸업하고 2019년에 순천대학교에 입학하고 동시에 각종대회를 휩쓸며 전남을 나아가 대한민국 여자양궁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LPGA 루키 최혜진 “준우승 아쉽지만 마무리 좋았다”

CP 여자오픈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 공동 2위...김아림 16언더파 5위

‘루키’ 최혜진(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최혜진은 29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헛트 앤드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 투어 캐나다 피시픽(CP) 여자 오픈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기록, 넬리 코다(미국)와 공동 2위에 올랐다. 최혜진은 19언더파 265타로 우승을 차지한 파올라 레토(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1타 뒤져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올해 투어에 뛰어난 루키 최혜진은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에 자리했지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로 2타를 줄이는데 만족했다. 최혜진은 버디 5개, 보기 1개로 4타를 줄인 레토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같은 루키 신분인 안나리(26)는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와 트리플보기를 1개씩 범해 오히려 1타를 잃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레토는 2014년 LPGA 투어에 뛰어난 이후 8년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아림(27)은 16언더파 268타로 5위에 이름을 올렸고, 김세영(29)은 12언더파 272타로 공동 9위에 자리했다. 양희영(33)은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17위에 올랐다. 대회를 2위로 마친 최혜진은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최혜진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중간에 타수가 많이 벌어지면서 다운했다가 후반에 잘 세이브했다. 오늘 특히 보기 없는 라운드를 한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반에 버디 찬스를 못 살리면서 위기가 있었다. 어제에 비해서 온 그린이 못한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세이브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쳤고, 후반에 버디가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혜진은 루키 시즌을 돌아봤다. 최혜진은 “항상 한국에서부터 LPGA 투어는 가고 싶은 무대였다. 직접 경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매주 만족도 많이 하고 실력도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다. 굉장히 즐겁고, 남은 경기도 루키답게 당당하게 좋은 경기를 하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 임성재 “투어 챔피언십 2위, 생각지도 못했다”

세계적인 선수들 모인 자리서 2위 선전...이경훈 27위로 마무리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임성재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4타를 줄여 최종합계 20언더파 264타를 기록했다. 우승을 차지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에게 한 타 뒤진 공동 2위의 기록이다. 매킬로이 역시 이날 4타를 줄여 최종 21언더파 263타를 썼다. 역대 한국 중역선 최고 성적이다. 2011년 최경주가 공동 3위에 오른 게 중역선 가장 높은 순

위였다. 3번과 4번 홀에서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린 임성재는 6번 홀에서 한 타를 더 줄였다. 8번 홀에서 한 타를 잃었지만 곧장 9번 홀에서 버디로 만회했다. 12번 홀 버디로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14번 홀에서 범한 더블보기가 뼈아팠다. 15번, 17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추격했지만 조금 모자랐다. 임성재는 “4일 동안 꾸준히 4언더파 이상 쳤다. 너무 좋은 성적 내서 좋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게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주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티샷이 좀 좋았던 것 같다. 1라운드 때는 실수가 좀 있었는데, 2라운드부터 오늘까지 티샷에서 실수가 거의 없었다. 페어웨이를 지키는 게 중요한 코스에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성재는 투어 챔피언십 선전으로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솔직히 이번 주에는 5위 안에만 들어도, 잘했다고 생각했다. 2위라는 성적을 내서 너무 기쁘다”고 기뻐했다. 올해 처음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한 이경훈(31)은 최종일에 이븐파에 그쳐 최종합계 1언더파 279타로 27위에 머물렀다. 이경훈은 투어 챔피언십에 오를 정도의 실력을 증명하면서, 다음 시즌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뉴스스